경력단절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른 재취업욕구 차이 분석

Analysis the differences of re-finding a job for women who has a career break following personal peculiarities

신 연 하*, 이 동 명**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박사과정*,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교수**

Yean-Ha Shin*, Dong-Myeong Lee**
Konkuk Univ.*, Konkuk Univ.**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른 구직의사와 구직활동의 재취업욕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특성에 따라 재취업욕구에는 차이가 있으며, 구직의사와 구직활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직의사는 30-40대 이상 연령이 높게 나타났고, 구직활동은 20대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특성에 따라 재취업욕구가 차이가 있으므로 구직활동과 구직의사를 분리해서 정책수립을 해야 하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Ⅰ. 서론

현대사회는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생산인구 감소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장려 정책과 경력단절여성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중 직업교육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의 개인특성에 따라 재취업욕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경력단절여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과 이에 맞는 직업교육 등 집중관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경력단절여성과 직업교육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을 말한다. 직업교육이란 직업에 대한 가치와 태도 형성, 직업진로의 탐색, 직업기술훈련 그리고 구직지원시스템까지 포함하여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 그리고 이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경력단절이후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난주, 2016).

2. 개인특성과 재취업욕구

개인특성이란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경력단절여성들의 경력단절문제는 개인 내적인 문제에 의해서만 야기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가족구성원 및 환경 등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손영미·박정열, 2016). 경력단절여성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사와 육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욕구를 재취업욕구라고 한다(오은진·박성정, 2008). 권희경(2010)은 연구에서 개인특성과 가족특성은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재취업욕구는 구직의사와 구직활동으로 분리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여성 모두가 재취업을 원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력단절여성들 간에도 집단내의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개인특성과 취업에 대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특성에 따라 재취업욕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개인특성에 따른 재취업욕구 차이 분석을 연구하고자 인구집중지역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중 직업교육 경험이 있는 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10월20~11월20일까지 총200부를 배포하여, 175부를 회수하고 무응답 및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25부를 제외하고 총 150부를 분석하였고 회수율은 75%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2.0v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개인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구직의사와 구직활동에 대한 재취업욕구의 요인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알파 검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직의사와 구직활동에 대한 재취업욕구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 및 Oneway ANOVA 분석을 사용하고 사후검증을 하였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표 1. 신뢰도 및 타당도분석

설문문항	성분		Cronbach'a	요인
	1	2		
5_1	.694	-	.821	구직활동
5_2	.792	-		
5_3	.730	-		
5_4	.807	-		
5_5	.790	-		
5_6	-	.716	.904	구직의사
5_7	-	.820		
5_8	-	.854		
5_9	-	.777		
5_10	-	.892		
5_11	-	.868		
Eigenvalue	2.917	4.069	-	-
추출제곱합 적재값	58.348	67.811	-	-

Ⅳ. 실증분석

실증분석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2. 구직의사 차이분석

구분	항목	M	SD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연령	20대(A)	3.28	.738	2.504	.045	A,C<B
	30-40대(B)	3.50	.677			
	50대 이상(C)	3.22	.901			
학력	고졸이하(A)	3.35	.619	2.501	.045	A,B<C
	전문대졸(B)	3.25	.835			
	4년대졸 이상(C)	3.78	.580			
자녀수	자녀없음(A)	3.40	.630	6.462	.000	B,C<A
	1명(B)	3.20	.964			
	2명이상(C)	3.10	.872			
재취업이유	경제적이유(A)	3.49	.703	31.47	.000	B,C<A
	인간관계(B)	3.42	.807			
	자기계발(C)	3.29	.835			
직업교육종류	자격증 취득(A)	3.67	.718	7.331	.000	C<B<A
	일반교육(B)	3.53	.619			
	취업대비교육(C)	3.03	.719			

표 3. 구직활동 차이분석

구분	항목	M	SD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연령	20대(A)	3.63	.563	4.779	.001	C<A,B
	30-40대(B)	3.57	.583			
	50대 이상(C)	3.16	.823			
학력	고졸이하(A)	3.33	.781	3.084	.018	A,B<C
	전문대졸(B)	3.37	.624			
	4년대졸 이상(C)	3.85	.579			
자녀 수	자녀없음(A)	3.58	.626	6.117	.001	B,C<A
	1명(B)	3.42	.839			
	2명이상(C)	3.05	.810			
경력단절이유	육아 및 가사(A)	3.25	.725	6.942	.000	A<B<C
	비전이 없어(B)	3.53	.663			
	회사권유(C)	3.71	.325			
재취업장애요인	육아 및 가사(A)	3.59	.214	7.567	.000	B<A<C
	자신감부족(B)	2.93	.742			
	열악한 노동시장(C)	3.87	.425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의 개인특성에 따른 재취업욕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직업교육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사후검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재취업욕구에 차이가 있고 특히 구직의사와 구직활동이 분리됨을 알 수 있다. 구직의사는 30-40대 이상이 높으나, 구직활동은 2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0-40대에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방해하는 육아 및 가사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20대에는 전문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종을 발굴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특성에 따라 재취업욕구가 차이가 있으므로 구직활동과 구직의사를 분리해서 정책수립을 해야 하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1] 권희경, 경력단절기혼여성의 재취업욕구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 87-98, 2010.
[2] 김난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 분석,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제26권 제2호, pp.1~27, 2016.
[3] 손영미 · 박정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예측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권 2호, 2016.
[4] 오은진 · 박성정,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 여성부 연구 용역보고서, 2008.